

**교회:**

**부서:**

**이름:**

**예수교사도의신앙교회 출판부**

# 청소년 공과

## 제 14 권



KAFC 출판부

## 주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순서	청소년 공과
제 170 공과	용서
제 171 공과	나의 마음은 어떤 땅인가?
제 172 공과	기도 응답
제 173 공과	하나님의 계획
제 174 공과	준비하고 싶어요
제 175 공과	한번 더 기회를
제 176 공과	올바른 태도
제 177 공과	변명하는 것은 어리석다
제 178 공과	잃은 한 마리 양
제 179 공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제 180 공과	어느 왕자가 왕이 되어야 할까?
제 181 공과	거절의 결과
제 182 공과	공과 복습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KAFC(한국 사도의신앙교회 출판부)에 있습니다.

허락 없이 복사 및 수정,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들어가면서

모든 교사 중 가장 위대한 분인 예수님은 종종 비유를 통해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지상의 일과 잘 알지 못하는 영적인 일을 비교하는 일에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은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 현저한 유사성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는 수수께끼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사람들에게는 비유의 의미가 감춰져 있었습니다.(마 13:10~15 참조)

누가복음에 기록된 비유들은 어렵지 않고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으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모인 무리들이 그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 권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 중 11 가지를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비천한 자, 버림받은 자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각각의 공과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삶과 관련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누가가 전한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성탄절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공과를 통해 지금까지 배운 공과 내용을 요약하고 복습하면서 예수님 비유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실 축복 합니다.

## 제 170 공과 용서

성경 본문: 누가복음 7:36-50

요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시므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시편 78:38)

칼빈이 처음 기억한 것은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선가 불빛이 비쳤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차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근심이 많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렇게 괴로워 보일까? 지금 여기는 어디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갑자기 그는 모든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아이들만 강에 나가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형 앤드류에게 강에서 뗏목을 타자고 말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화창한 날이었고, 그의 부모님은 오후에 외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강에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형 앤드류에게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셨으니, 강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처음으로 뗏목 위에서 조류의 힘을 느꼈을 때, 자신을 관통했던 두려움을 기억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항상 강물 위에서 뗏목을 타는 모습은 정말 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끌어당기는 조류의 힘센 물살은 그들을 강 한가운데로 빠지게 했습니다. 칼빈은 뗏목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런 다음 모터보트가 속도를 내며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질주했고, 뗏목은 기울어졌습니다. 앤드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

‘앤드류 형! 형은 어디에 있지?’

칼빈은 그를 둘러싸고 있던 흐릿한 기억을 뚫고 몸부림쳤습니다. "앤드류 형." 그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앤드류 형은 어디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칼빈에게 말했습니다. "칼빈! 깨어났니? 내 말 들려, 칼빈?"

"앤드류 형은 어디 있어요?" 칼빈은 한 번 더 힘을 내어 물어보았습니다. "형은 어디 있어요? 괜찮아요?"

그의 어머니는 힘없이 뒤를 돌아본 다음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면서 말했습니다. "숫! 칼빈. 더 이상 말하지 마. 지금은 그냥 쉬어."

‘엄마, 말해 주세요.’ 그는 힘을 다해 다시 말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이 괜찮을까?’ 눈을 감자 형의 모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형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복잡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나는 형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형에게 엄마와 아버지가 우리에게 강으로 가도 된다고 허락했다고 말했습니다. ‘형은 괜찮을 거야!’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앤드류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뗏목이 기울어진 곳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서 의식을 잃은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살아 있었지만, 그의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칼빈의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칼빈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앤드류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칼빈의 건강이 점점 회복되자, 그의 부모님은 앤드류에 대해 칼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칼빈은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괴로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얼굴을 벽으로 돌리며 신음했습니다. ‘형! 다 나 때문이야.’

칼빈은 그날 밤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형이 회복되더라도 절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형은 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형이 좋아하는 교회도 못 가고, 나 때문에 형의 생일 파티도 못 하게 되었네. 형은 나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몸도 아프고 내가 왜 그랬을까!’

앤드류는 건강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칼빈의 마음은 절망감이 쌓여만 갔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이야. 내 탓이야.’ 그는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형은 아마도 다시는 나와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 형은 나를 정말 좋아했는데.’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 간호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칼빈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칼빈, 아래층에 있는 형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네요. 이 휠체어를 타고 가면 어때요? 내가 그곳으로 데려다 줄게요.”

칼빈의 심장이 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칼빈은 형이 자신을 정말 보고 싶을까 생각하면서 형의 병실로 갔습니다.

앤드류는 동생을 보고 싶었습니다. 동생에 대한 분노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짧았지만, 칼빈이 자신의 병원 침대에 다시 돌아왔을 때 압도적인 안도감이 그를 휩쓸었습니다. 앤드류는 칼빈을 용서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도 그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밤낮 참고 있었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병원에 온 이후로 할 수 없었던 일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형에게 거짓말을 하고 뗏목을 꺼내 앤드류를 다치게 한 것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나는 내가 오래전에 구원받았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것을 약속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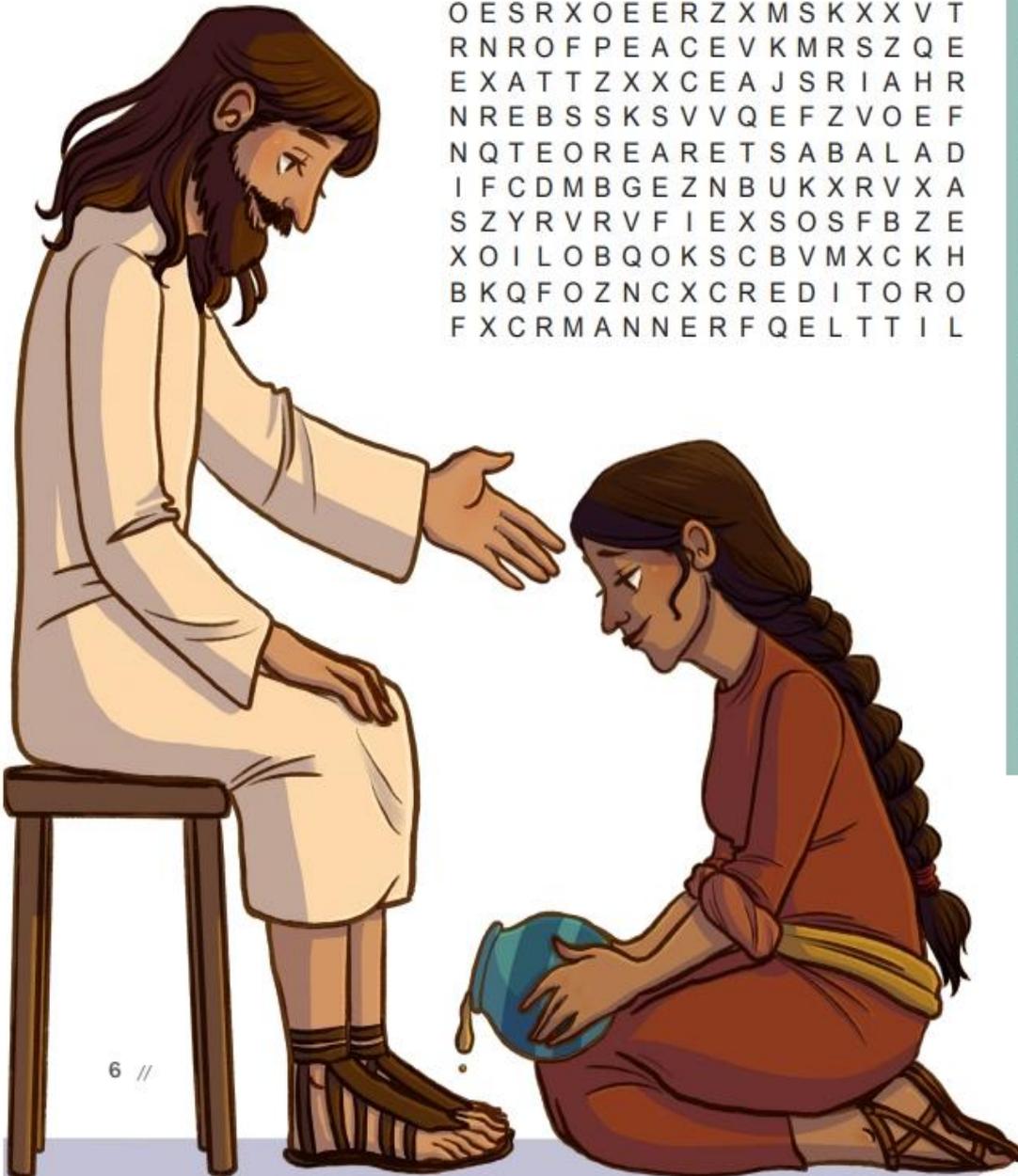
그날, 칼빈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평안과 위로가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마음속에 얼마나 큰 사랑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는 자신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구원받으면 정말 좋다고 사람들이 말했는데 그것은 정말 사실이야!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고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리라는 것을 믿어!’

**FORGIVENESS  
FOR ALL**

God's forgiveness is for all people. When we are forgiven for our sins, there is great love in our hearts for Him. The words on the list to the right of the word-find are from the Bible text. Find and circle them in the word-find. They read up, down, across, backwards, and diagonally.

J X P H A R I S E E S F X F O X W H  
 U F R Q E O X S Z C A K C Z F A R O  
 D K O Z F R V I X K V O B X T C Q U  
 G F P O A W B K S F E E T E K L X S  
 E O H X I Q O C N Q D F R B O R N E  
 D R E V T S F M X V K Z E V F V O Z  
 X G T R H F X K A E R B E A Q X M M  
 W I P E D C X Q C N N F V O B V I A  
 F V Q S K O I N T M E N T X O C S S  
 O E S R X O E E R Z X M S K X X V T  
 R N R O F P E A C E V K M R S Z Q E  
 E X A T T Z X X C E A J S R I A H R  
 N R E B S S K S V V Q E F Z V O E F  
 N Q T E O R E A R E T S A B A L A D  
 I F C D M B G E Z N B U K X R V X A  
 S Z Y R V R V F I E X S O S F B Z E  
 X O I L O B Q O K S C B V M X C K H  
 B K Q F O Z N C X C R E D I T O R O  
 F X C R M A N N E R F Q E L T T I 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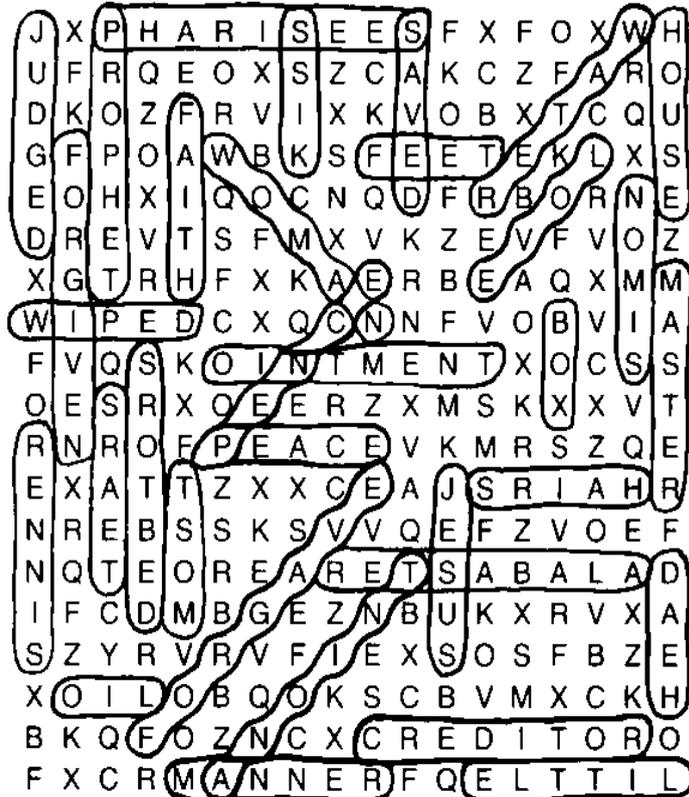
BOX  
 OIL  
 FEET  
 HEAD  
 KISS  
 LOVE  
 MOST  
 FAITH  
 HAIRS  
 HOUSE  
 JESUS  
 PEACE  
 PENCE  
 SAVED  
 SIMON  
 TEARS  
 WATER  
 WIPED  
 WOMAN  
 ANOINT  
 JUDGED  
 LITTLE  
 MANNER  
 MASTER  
 SINNER  
 DEBTORS  
 FORGAVE  
 PROPHET  
 CREDITOR  
 FORGIVEN  
 OINTMENT  
 ALABASTER  
 PHARISEES



## 모든 것을 용서하심

하나님의 용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때 우리 마음에는 그분을 향한 큰 사랑이 생깁니다. 성경 본문에 나온 왼쪽 아래 단어들을 알파벳 퍼즐에서 찾아보세요.

BOX  
OIL  
FEET  
HEAD  
KISS  
LOVE  
MOST  
FAITH  
HAIRS  
HOUSE  
JESUS  
PEACE  
PENCE  
SAVED  
SIMON  
TEARS  
WATER  
WIPED  
WOMAN  
ANOINT  
JUDGED  
LITTLE  
MANNER  
MASTER  
SINNER  
DEBTORS  
FORGAVE  
PROPHET  
CREDITOR  
FORGIVEN  
OINTMENT  
ALABASTER  
PHARISEES



## 제 171 공과 나의 마음은 어떤 땅인가?

성경 본문: 누가복음 8:4-15

요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에스겔 3:10)

에이버리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에이버리 집에 친구 조이가 같이 하룻밤을 같이 보내기 위해 그녀의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이버리의 아버지는 가정 예배를 위해 성경을 꺼내고 계셨습니다. ‘조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조이는 아마도 우리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야! 조이 가족은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같은데’ 에이버리는 생각했습니다.

“자, 에이버리. 네 방으로 가서 아이팟으로 노래 들어보자.” 조이는 거실에 모인 가족들을 눈치채지 못한 채 에이버리에게 말했습니다.

“어, 조이. 이제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릴 시간인데, 같이 하면 어때?” 에이버리는 조이가 자신의 붉은 얼굴을 눈치채지 않기를 바라면서 물었습니다.

조이는 약간 멍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깨를 으쓱하고 에이버리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니?” 조이는 에이버리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빠가 성경을 읽는 동안 들어보면 돼.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에이버리는 그것이 사실이길 바라면서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신 이야기를 읽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8 장을 보겠어요.” 에이버리의 아버지는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무릎 위에 펼쳐진 성경을 내려다보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씨 부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뿌릴 때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아,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구나.’ 에이버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이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에이버리는 조이가 기독교 가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이는 아마도 다양한 종류의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에이버리는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조이는 아마도 농사에 대한 이야기가 왜 성경에 나오는지 궁금해할 거야!’

“흥미로운 이야기군요.” 조이는 비유가 끝난 후 잠깐 멈칫하면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 그 이상이란단다. 조이.” 에이버리의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비유라고 하지.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사용한 비유란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땅의 종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나타내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잠깐만 따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씨’가 마음속 깊이 들어가 자라기 시작한다.”

“저는 성경에서 이 부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조이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에이버리는 불안해하며 쿠션 위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더 이상 말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조이가 불편해하거나 당황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이는 당황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이버리의 아버지가 말을 했을 때 조이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중요하지. 조이! 우리는 듣고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속여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어.”

“어떻게 사람이 자신이 어떤 종류의 땅인지 알 수 있죠?” 조이가 에이버리에게서 그녀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에이버리가 대답하지 않자, 그녀의 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땅이 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에 따라 행동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지.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그것을 훔쳐 갈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란다.”

거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이버리는 친구를 훔쳐보았습니다. 조이는 약간 곤란해하는 것 같았고, 이제 조이는 앞에 있는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꽤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정말 심각하지, 조이.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너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니?” 에이버리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가끔 교회에 가곤 했는데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조이가 위를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에이버리는 평생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어렸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오래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에이버리는 그녀 옆에 앉아 대화하는 아버지와 조이를 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가 아직도 나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을까?’

그녀는 그럴거라 생각했고 여전히 자신은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의 씨가 떨어져 잠깐 기뻐지만, 뿌리가 없어 자라지 못한 돌밭이진 않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면서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 가시밭은 아닐까?’

조이의 질문에 에이버리는 두 사람의 대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에이버리의 아버지가 구원받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동안 에이버리는 친구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조이는 구원이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이는 분명히 구원받아야 해,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이지? 자신의 마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나는 아빠가 읽었던 말씀처럼 좋은 열매를 맺고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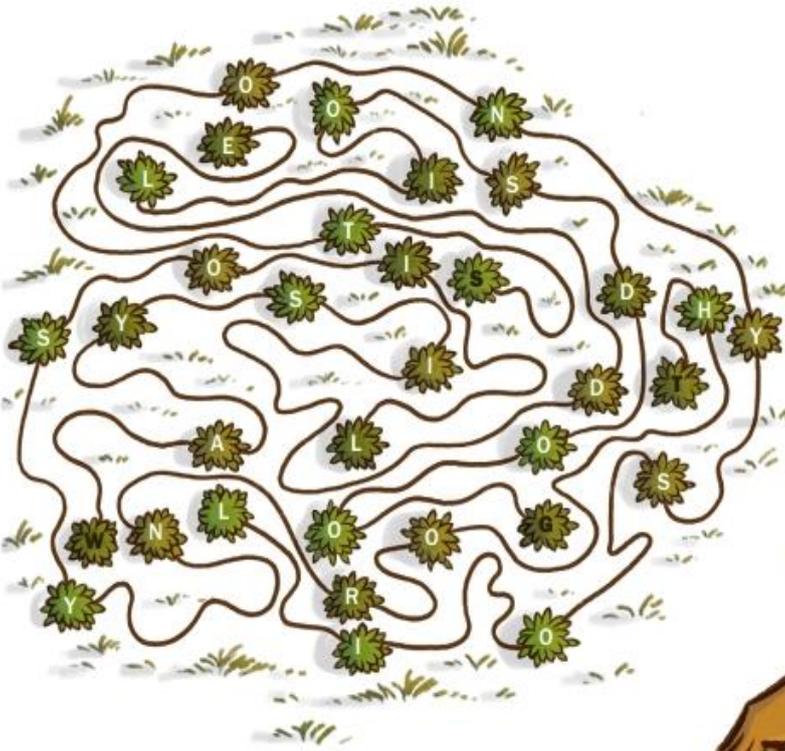
“감사합니다. 아저씨!” 조이가 부드럽게 말하는 것을 에이버리는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나는 오늘 들었던 이야기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에이버리도 이것에 대해 좀 생각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땅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기를 원해.’

Lesson 171 Activity

**WHICH SOIL  
ARE YOU?**

When the sower was planting the seed, it fell on different kinds of ground. There are four black letters in the maze below. Using these as the starting points, follow each path and write the words on the lines provided.



Put a check mark next to the kind of "soil" you would want your heart to be when the seed (Word of God) is planted.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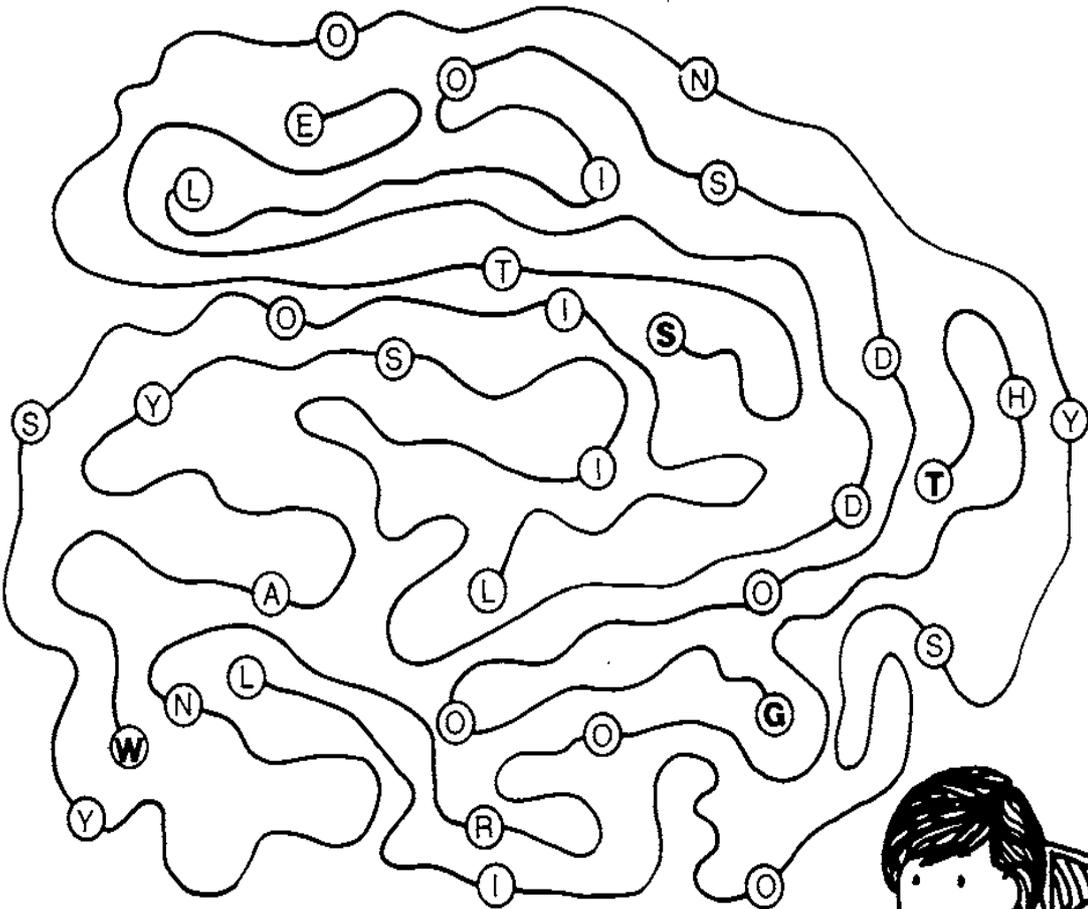
---

"AND HE SPAKE  
A PARABLE . . ."



##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땅입니까?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는 여러 종류의 땅에 떨어집니다. 아래 검은 글자(G,W,S,T)를 출발점으로 삼아 경로를 따라가면서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적어보세요.



Which kind of "soil" would you want your heart to be, when the seed (Word of God) is planted?

Good Soil  
Wayside  
Stony Soil  
Thorny Soil



## 제 172 공과 기도 응답

성경 본문: 누가복음 11:5-13; 18:1-8

요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누가복음 18:1)

“또 오신다고요? 안 돼요!” 루카스가 신음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3 주 전에 여기 오셨잖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또 오신다고요? 우리 가족끼리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모든 걸 망칠 거 같아요.”

루카스의 아버지는 방금 받은 편지를 접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아들이. 할아버지가 항상 명령하듯이 말하는 말투 때문에 네가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단다. 할아버지는 군인으로 오래 사셔서 군인처럼 행동하시지. 나머지 가족들이 할아버지의 행동을 힘들어 해서 할아버지가 또 이곳으로 오시는 것 같구나.” 아버지가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는 좀 괜찮으셨는데.”

“아빠,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기가 힘들어요? 할아버지는 때때로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하지만 너무 쉽게 화를 내고, 너무 권위적이어서 대부분의 경우 할아버지 곁에 있기가 힘들어요.”

“루카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분이셨던 때가 잠깐 있었지. 그때 우리 가족 모두가 교회에 나갔었던단다. 그 때 나는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그 때 나는 열 살이었어. 지금 너보다 두 살이 어렸구나.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승진하여 다른 군으로 전근을 가게 되었어. 우리는 교회에서 멀어졌고, 아버지는 하나님에 대해 거부하셨어. 아버지는 삶에 대해 괴로움과 분노를 느꼈고, 자신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화를 내셨지. 어머니와 나는 아버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곤 했어. 비록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나는 아버지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단다.”

“아빠,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셨나요?”

“25 년이 넘었지, 루카스. 때로는 낙담할 때도 있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안단다. 언젠가는 할아버지도 구원받고 싶어하실 거야. 어쨌든, 편지에는 열흘 안에 할아버지가 여기에 다시 온다고 쓰여 있구나.”

날이 갈수록 다들 크리스마스 준비에 분주해졌습니다. 루카스는 크리스마스에 할아버지가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신이 날지, 아니면 속상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시기 전날 저녁, 가정 예배에서 아버지는 평소처럼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루카스는 아버지가 얼마나 자주 그 기도를 하셨는지 생각했고, 어떻게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계속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궁금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절대 변하지 않으실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공항에 도착했을 때, 루카스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들을 맞이할지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와 악수를 하고 어머니의 등을 토닥거린 후 루카스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것 같았습니다. “얘야, 별로 변하지 않았구나. 아직도 똑바로 서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구나.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결코 좋은 군인이 될 수 없단다.” 할아버지의 찌푸린 얼굴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몸이 똑바로 세워졌습니다.

루카스는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초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군인인 것처럼 깨끗하게 서서 군중 속에서 단연 돋보였습니다. “저기 있어요, 아빠!” 루카스는 흥분해서 할아버지를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들을 발견했을 때, 그의 엄격한 표정은 기뻐하는 표정으로 부드럽게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곧 그들에게 다가가 가방을 내려놓고 엄마와 아빠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루카스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물론,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있겠지, 얘야. 내가 너희 집을 방문할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맙구나.”

루카스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만나서 반가워요.”라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다가 당황한 나머지 가방 하나를 집어 들고 차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뒷좌석에 앉은 루카스는 지나가는 차들에 관심을 갖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부모님과 할아버지와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루카스는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만큼 친절해졌습니다. 집에 거의 도착할 때까지 할아버지는 그를 꾸짖거나 누구에게도 트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번 크리스마스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버지는 루카스에게 가정 예배를 위해 성경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루카스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할아버지는 성경을 읽기 전에 항상 떠날 핑계를 대시잖아.’ 하지만 놀랍게도, 할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편안한 자세로 자리를 잡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루카스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아버지에게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버지, 조금 전에 제게 말씀하신 것을 루카스에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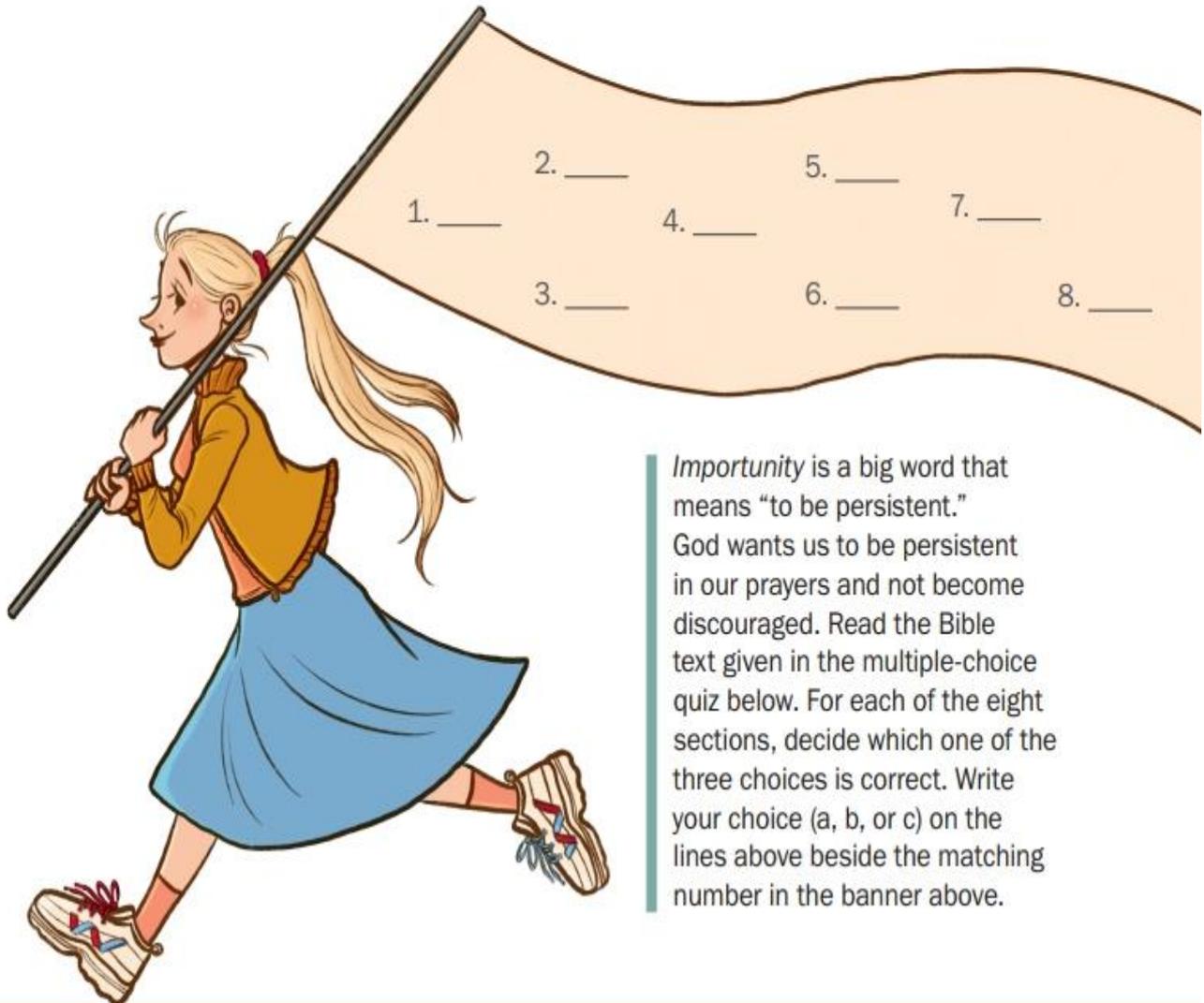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루카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수년 동안 매일 기도해 온 것을 알고 있단다. 나는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너에게 얘기하고 싶구나. 나는 내가 그토록 불행했던 이유를 마침내 깨달았지.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버렸기 때문이었어. 루카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에게서 어려워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할머니와 아버지의 기도를 사용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셨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어.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란다.”

루카스의 눈은 점점 커졌고, 눈물을 참기 위해 눈을 깜빡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토록 달라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드디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루카스는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루카스의 아버지는 성경을 펼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도 없고 계속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할 수 있었어요. 누가복음 18 장 1 절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었고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볼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뻐요!”

Lesson 172 Activity

**KEEP ON  
PRAYIN'**



*Importunity* is a big word that means “to be persistent.” God wants us to be persistent in our prayers and not become discouraged. Read the Bible text given in the multiple-choice quiz below. For each of the eight sections, decide which one of the three choices is correct. Write your choice (a, b, or c) on the lines above beside the matching number in the banner above.

- 1. LUKE 11:5**  
a. Which of you shall have a neighbor  
b. Which of you shall have a friend  
c. Which of you shall have a brother

- 4. LUKE 11:6**  
a. for my mother has come  
b. for a friend of mine is come  
c. for a neighbor has come

- 7. LUKE 11:8**  
a. because of his need  
b. because of his importunity  
c. because he asked

- 2. LUKE 11:5**  
a. shall go unto him at midnight  
b. shall go unto him at lunch time  
c. shall go unto him at evening

- 5. LUKE 11:6**  
a. I have no milk  
b. I have no loaves  
c. I have nothing to feed him

- 3. LUKE 11:5**  
a. Friend, lend me three loaves  
b. Neighbor, lend me a loaf  
c. Brother, lend me two loaves

- 6. LUKE 11:7**  
a. Trouble me not  
b. Ask someone else  
c. You can have some tomorr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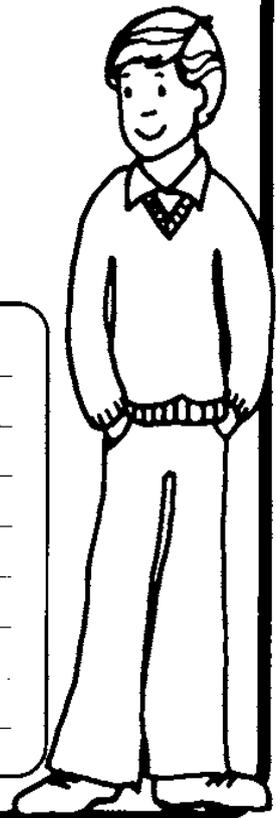
- 8. LUKE 11:8**  
a. he will give him as many as he needs  
b. he will give him what he can spare  
c. he will not give to him

##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세 가지 보기 중 맞는 답을 찾아 보세요

1. Luke 11:5  
a. Which of you shall have a neighbor  
b. Which of you shall have a friend  
c. Which of you shall have a brother
2. Luke 11:5  
a. shall go unto him at midnight  
b. shall go unto him at lunch time  
c. shall go unto him at evening
3. Luke 11:5  
a. Friend, lend me three loaves  
b. Neighbor, lend me a loaf  
c. Brother, lend me two loaves
4. Luke 11:6  
a. for my mother has come  
b. for a friend of mine is come  
c. for a neighbor has come
5. Luke 11:6  
a. I have no milk  
b. I have no loaves  
c. I have nothing to feed him
6. Luke 11:7  
a. Trouble me not  
b. Ask someone else  
c. You can have some tomorrow
7. Luke 11:8  
a. because of his need  
b. because of his importunity  
c. because he asked
8. Luke 11:8  
a. he will give him as many as he needs  
b. he will give him what he can spare  
c. he will not give to him

1.   B
2.   A
3.   A
4.   B
5.   C
6.   A
7.   B
8.   A



## 제 173 공과 하나님의 계획

성경 본문: 누가복음 2:1-20

요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11)

다코타는 가족들이 모여 포옹하고 인사를 나누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열어 보는 분위기 속에서 지난 3 개월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슬픔을 잠시 떨쳐버리고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만들어 준 아름다운 나무 퍼즐 선물을 열었을 때,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어 아버지를 찾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코타는 퍼즐을 들고 몸을 돌려 아버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여기에 없고 다시는 다코타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없습니다.

그는 목에서 커다란 덩어리 같은 것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선물을 집어 들고 방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선물 상자들을 치운 뒤 그를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코타의 할아버지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그 아이를 내버려 두렴. 그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우리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 될 거라고 알고 있었잖니. 내가 잠시 후에 가서 다코타와 이야기를 나눌게.”

다코타는 선물을 침대 위에 내려놓고 그것에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는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선물을 바라보자 다른 크리스마스에 대한 많은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모두가 집으로 떠날 때까지 자신의 방에 있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만들어 준 퍼즐 선물을 보면서 지난 크리스마스가 그리워졌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의 생각이 멈췄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도 될까?”라고 물었습니다.

“네.” 다코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손에 퍼즐 상자를 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잘 만드셨네요. 이것을 만드느라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작품은 정말 완벽해요.”

“고맙구나, 다코타. 나는 너를 위해 이것을 즐겁게 만들 수 있었단다. 그리고 이것을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지난 몇 달간 힘든 일도 많이 겪었잖아.”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다코타 옆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다양한 일들이 마치 퍼즐 조각과 같다고 생각했어. 한 조각으로는 잘 알 수 없지만 모두 합치면 완벽한 작품이 완성되지.”

다코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다코타, 네 아버지의 죽음은 네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야. 그러나 그것은 너의 삶을 향한 하나님 계획의 일부란다. 그것은 퍼즐의 어두운 조각과도 같아. 우리의 인생에는 빛뿐만 아니라 어두운 조각도 있

단다. 하나의 그림을 보면 그림자가 비치는 부분과 다른 색과 달리 짙은 부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작품 안에는 빛과 어둠이 같이 있단다.”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 이어갔습니다. “2 주 전 너의 생일에 이 선물을 주지 않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퍼즐을 너에게 준 이유가 있단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도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 계획에도 어두운 부분이 있었어. 하나님의 아들이 왕궁이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침대가 아닌 구유에서 눕고, 폭신한 이불이 아닌 짚이 깔린 곳에 있어야 했단다. 마리아는 고향 나사렛이 아닌 낯선 도시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지. 또, 이스라엘 왕은 그 아이를 죽이기를 원했어.”

다코타는 조금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 할아버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 등록을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들이 호적 등록을 위해 떠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태어났겠죠.”

“아니란다, 다코타.”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사실은 그 일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예언된 것이었어.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야.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던 왕의 명령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었던 것이지.” 할아버지는 잠시 멈춰 서서 손자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코타, 너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완벽하단다.”

다코타는 잠깐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그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어두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아마도 자신에게 닥친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이라 여기고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해야 할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NO SURPRISE!**

Jesus' birth should not have been a surprise to the people. God had let them know in Old Testament times where Jesus would be born and into what family He would be born. When they really thought about this they finally asked . . . Well, you figure out what they asked. Each letter of the coded verse below represents the letter that comes BEFORE it in the alphabet. Example: B=A, C=B, etc.



IBUI OPU UIF TDSJQVVSF

TBJE' UIBU DISJTU DPNFUI

PG UIF TFFE PG EBWJE'

BOE PVU PG UIF UPXO PG

CFUIMFIFN' XIFS F EBWJE

    ?  
XBT

##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날지를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래 문자 코드를 풀어보세요. 문자 코드를 푸는 방법은 밑줄 아래 적힌 알파벳 앞 문자를 적으면 됩니다.(예: B=>A, C=>B)

Hath not the scripture  
IBUI OPU UIF TDSJQUVS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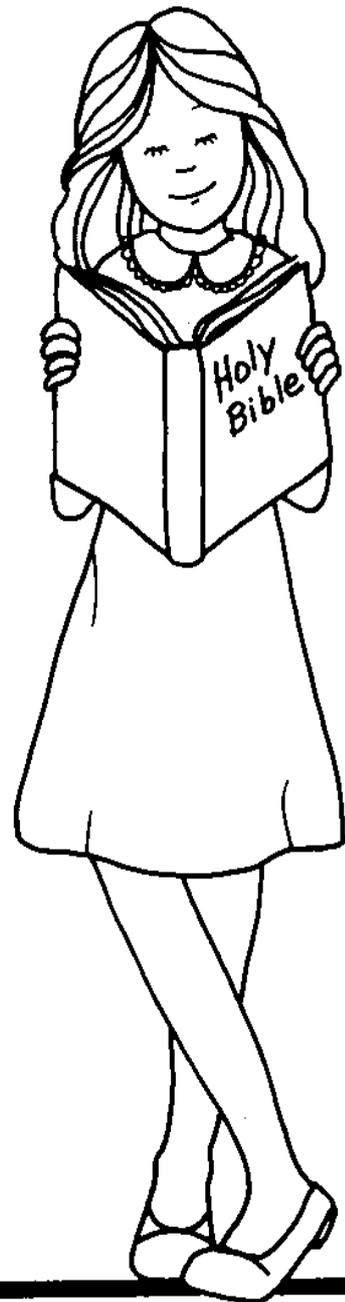
said that Christ cometh  
TBJE, UTBU DISJTU DPNFUT

of the seed of David  
PG UIF TFFE PG EBWJE,

and out of the town of  
BOE PVU PG UIF UPXO PG

Bethlehem where David  
CFUTMFTFN, XTF SF EBWJE

was  
XBT?



## 제 174 공과 준비하고 싶어요

성경 본문: 누가복음 12:35-48

요절: 이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44)

한 무리의 소년들이 앉아 점심을 먹고 있던 구내식당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조롱하듯이 말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애드리안 윌슨의 아버지가 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중 하늘에서 여러 개의 밝은 빛을 보았다. 아저씨는 너무 무서워서 차를 세우고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런데, 개기 월식이 있던 7 월 4 일이라는 사실을 잊었던 거야!” 그곳에 있던 소년들은 더욱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스카 램버트는 일어서서 조용히 문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그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이봐 램버트, 무슨 일이야? 너 겁먹은 거야?”

오스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농담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들 중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어서 앉아서 밥이나 먹어. 이야기 주제를 바꾸면 되지.” 나머지 소년들은 속삭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농담을 했다는 거야?”

오스카는 멧쩍은 듯 어깨를 올리고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는 마음속이 쓰라렸습니다. 그는 그들의 말이 왜 그토록 자기를 화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나는 어디에 있게 될까?’ 그는 스스로 물었습니다. 그는 잠깐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싶었지만, 그날 오후수업이 세 개 더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는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오스카는 식당에 있었던 일을 통해 예수님이 실제로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는 집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전화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분들이었고, 자기가 가진 질문에 대한 답을 잘해 주실 것 같았습니다.

오스카의 조부모님은 그가 전화했을 때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으로 맥앤드치즈를 만들고 있었단다. 저녁 먹으러 오렴!”

그날 밤, 식탁에 모인 세 사람은 맛있는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식사하던 오스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고 생각하세요? 곧 오실까요?”

그의 조부모님은 빠르게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음, 오스카, 언제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릴지는 나도 모르겠구나. 천사들조차도 모른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깐. 하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지. 예수님은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셨단다.”

"정말요? 성경에 그때가 언제인지 나온다고요?" 오스카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성경을 집어 들고 마태복음을 찾았습니다. "오스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다고 말씀하셨단다. 마태복음 24 장 44 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했어."

"이상하다." 오스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아신다는 뜻이겠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깐.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그들은 준비되어 있을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경고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을 테지. 예수님은 마가복음 13 장 33 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지.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자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스카, 성경에는 많은 예언이 있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마지막 날인 것 같구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다 된 것 같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습니다. "알다시피, 할아버지와 나는 오랫동안 너를 위해 기도해 왔단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마지막 때와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부어질 것인지에 관해 이야기할 때, 오스카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재림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나? 지금 나에게 해야 할 질문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준비가 되어 있는가여야 하는데.'

그는 마침내 저녁 식사 내내 하고 싶었던 말을 꺼내었습니다. "할아버지. 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싶어요.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실래요?"



## 준비되었나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에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아래 네모 안에 마태복음 13 장 35, 36 절을 적어 보세요. 숫자가 적힌 알파벳을 아래 네모 상자에 적은 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Verse 35: Watch ye therefore: for  
ye know not when the master  
of the house cometh, at  
even, or at midnight, or at  
the cockcrowing, or in the  
morning:

Verse 36: Lest coming suddenly  
he find you sleeping

We must always . . .

W A T C H

1 2 3 4 5

A N D

6 7 8

P R A Y

9 10 11 12



## 제 175 공과 한번 더 기회를

성경 본문: 누가복음 13:6-9; 요한복음 15:1-8

요절: 이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누가복음 13:9)

콜튼은 지쳐서 괄이를 던져 버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딸기 식물 옆으로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그는 딸기 한 알을 찾기 위해 무릎을 꿇고 이리저리 뒤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들은 너무 쪼그라들어서 찾을 가치가 없다고 느낄 정도로 작은 것이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딸기를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그의 생각은 처음에는 너무나 대단해 보였습니다. 콜튼은 정원 옆 잔디 위에 털썩 주저앉아 우울하게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태양이 따뜻해서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딸기가 태양 빛을 잘 쬐고 잘 자라리라 생각했지만, 딸기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한 달 전으로부터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딸기를 포기해야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식물을 심기 전 참고했던 씨앗 카탈로그에 있는 딸기 사진은 보기만 해도 먹고 싶을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는 사진 속 딸기를 기대했지만, 정작 자신이 키운 딸기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는 씁쓸했습니다.

그는 딸기를 재배하기 위해 종자, 비료, 정원 도구 구매로 35 달러를 썼습니다. 이 돈으로 새 비디오 게임을 사거나 레고 세트를 사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냥 딸기를 파낼까도 생각했습니다. 식물에 딸기가 열리지 않아 딸기를 팔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딸기와 함께 자란 잡초들로 인해 뒤뜰은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어머니는 가을에 상추와 콩을 심는데, 그것을 심을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콜튼은 일어서서 바지에 붙은 풀을 털어내고 괄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식물을 파기 시작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집 모퉁이를 돌아왔습니다. “딸기를 가꾸고 있니, 아들?”

“아니에요.” 콜튼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엉망진창인 것 좀 보세요! 난 그냥 이것들을 파내서 없애 버릴 거예요.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머니가 상추와 콩을 심게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동정 어린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딸기가 별로 건강해 보이지 않지?” 아버지는 그들 앞에 있는 식물들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래요.” 콜튼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에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는 식물을 키우느라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했어요.”

“아, 잠깐만요, 아들이.” 아버지가 그를 제지했습니다. “나도 너의 식물을 보고 있었단다. 아마도 우리가 이 딸기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딸기 주변에 잡초가 꽤 많이 자라고 있어. 올여름처럼 비가 적게 올 때는 딸기에 정기적으로 물을 주어야 한다고 내가 한두 번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러네요.” 콜튼은 조금 수줍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잡초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계속 물을 줘야 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키워보자. 네가 앞으로 잡초를 잘 제거하겠다고 약속하면, 딸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줄게. 또, 식물에 더 자주, 정기적으로 물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콜튼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아빠.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생각에 이것은 처음부터 씨앗 종자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앙상한 가지와 작은 열매를 보세요. 씨앗 카탈로그에 있는 사진 속 딸기는 크고 탐스러웠어요. 이것은 사진과 전혀 달라요.”

“네 말이 맞아.” 그의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너의 식물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거로 생각하는데. 우리 한번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

“글쎄요. 알겠어요.” 콜튼은 여전히 조금 꺼림칙한 듯 말했습니다. “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겠네요. 하지만 이 식물들이 단기간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딸기를 맺지 못한다면 나는 이것들을 완전히 포기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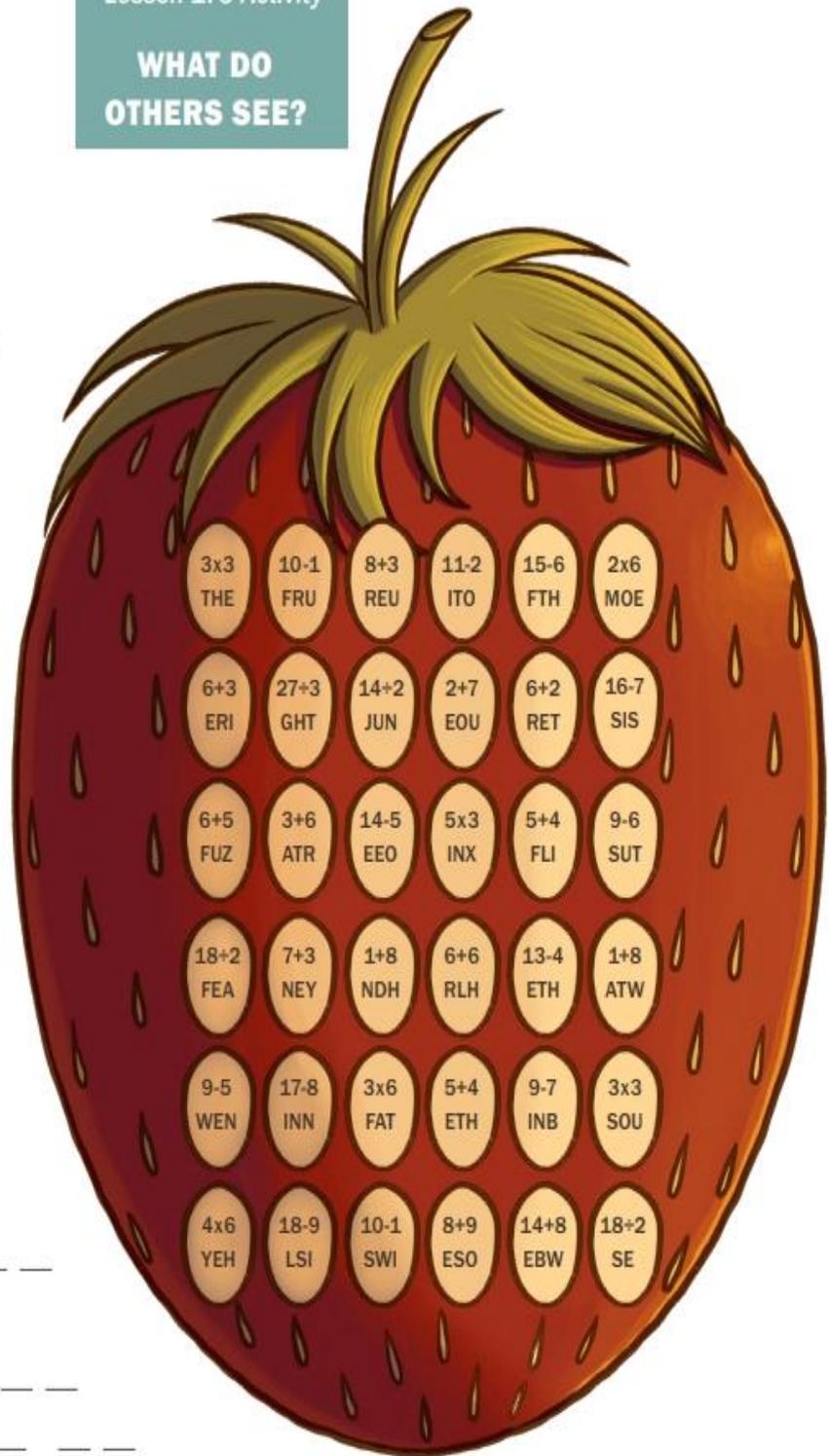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생각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베어버리라고 주인이 말하자 포도원지기는 1년 동안 거름을 주고 잘 경작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원을 잘 가꾸는 사람이 되라고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영적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길 원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그를 도와 그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WHAT DO OTHERS SEE?**

If we have fruit in our lives, others will see and know what Jesus has done for us. To find out what some of this fruit is, you will need to cross out any "seeds" in the strawberry where the math problem does not equal nine. Then write the letters from the "seeds" that do equal nine on the lines below.



-----

-----

-----

-----

-----

-----

-----

-----

##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우리 삶에 열매가 있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아래 9가 아닌 것을 지우고 남아있는 글자를 연결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Scratch Paper

<del>3×3</del>	10-1	<del>8+3</del>	11-2	15-6	<del>2×8</del>
THE	FRU	<del>REN</del>	ITO	FTH	<del>MOE</del>
6+3	27÷3	<del>14÷2</del>	2+7	<del>6+2</del>	16-7
ERI	GHT	<del>JUN</del>	EOU	<del>RET</del>	SIS
<del>6+5</del>	3+6	14-5	<del>5×3</del>	5+4	<del>9-6</del>
<del>FUA</del>	ATR	EEO	<del>INA</del>	FLI	<del>SUT</del>
18÷2	<del>7+3</del>	1+8	<del>6+6</del>	13-4	1+8
FEA	<del>NEY</del>	NDH	<del>RLH</del>	ETH	ATW
<del>9-5</del>	17-8	<del>3×6</del>	5+4	<del>9-7</del>	3×3
WEN	INN	<del>FAT</del>	ETH	<del>INE</del>	SOU
<del>4×6</del>	18-9	10-1	<del>8+9</del>	<del>14-6</del>	18÷2
<del>YEH</del>	LSI	SWI	<del>ZSO</del>	<del>EBW</del>	SE

THE FRUIT OF THE RIGHTEOUS  
IS A TREE OF LIFE; AND HE  
THAT WINNETH SOULS IS WISE.

## 제 176 공과 올바른 태도

성경 본문: 누가복음 14:7-14; 18:9-14

요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6)

와이어트는 휠 위에 점토 덩어리를 올려 중심을 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중심이 잡히자, 회전하는 회색 점토 속으로 손가락을 밀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바닥을 넓히고 양쪽 측면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꽃병의 윤곽을 다듬고 있을 때, 어떤 학생이 그의 뒤로 다가와 그의 팔꿈치를 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인해 도자기 모양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미안해!" 와이어트는 누군가가 감정 없는 어조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누가인지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아. 다시 만들지 뭐." 와이어트는 휠 위에 구겨진 점토를 제거하면서 말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잭슨은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네가 도자기에 대해 뭘 아니?"

"나의 이모가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도자기 가게를 운영하고 계셔. 나는 여기로 이사 오기 전까지 그곳에서 살았어. 나는 이모 가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고 도자기를 배웠어. 그런데 내 이름은 와이어트 맥팔랜드야. 한 달 전에 전학을 왔어."

잭슨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나는 잭슨 베넷이야. 나는 이 지역에서 도자기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 3년 연속 시립고등학교 도자기 대회에서 우승했거든."

"우와! 정말 대단해! 네가 만든 작품 보고 싶어."

잭슨이 그곳을 떠나려고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어, 아마 보게 될 거야. 이 지역에서 소중한 물건이니깐!" 그가 사라지자, 와이어트는 놀라서 고개를 저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런 아이를 처음 봐. 거만하고 교만해. 자기 자랑이 대단한데!'

그날 밤 와이어트는 오늘 일을 그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잭슨은 매우 불쌍한 아이 같구나.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라고 말하잖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는 것을 너도 잘 알고 있지. 잭슨과 친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그 아이도 변할 수 있을 거야."

"노력해 볼게요, 아빠." 와이어트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와이어트는 잭슨의 친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비록 함께 수업을 들은 적은 없었지만 둘 다 방과 후에 도자기 수업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잭슨은 와이어트가 만든 도자기를 본 후, 와이어트에 대해 경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잭슨이 와이어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도자기 대회에 출품할 거니?”

“어, 그렇지. 사실, 내가 작업하고 있는 이 작품을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다면 이것을 대회에 내려고 해. 어젯밤에 무광택 유약 가루를 만들었거든.” 와이어트는 자신이 측정하고 혼합한 유약 가루 봉지를 들고 말했습니다. 와이어트는 시계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나는 이제 정리하고 나가야겠어.” 그는 자신의 재료들을 모아 자기 사물함에 넣고 잭슨에게 짧게 손을 흔들며 나갔습니다.

잭슨은 와이어트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아무도 보시고 사람이 없는지 주위를 둘러보며 와이어트의 사물함으로 갔습니다. 그는 혼합 분말 봉지를 꺼낸 후 청회색 크리스털 분말을 그 안에 넣었습니다. ‘이건, 와이어트의 유약을 좀 다르게 만들어 줄 거야!’ 잭슨은 혼자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 내가 도자기 대회 우승자야. 1등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지!’

도자기 대회 날! 참가자들이 심사위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그곳은 흥분의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긴장하면서 출품작을 보았지만, 잭슨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심사위원들이 단상에 올라가 우승자를 발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잭슨은 우승자가 당연히 자기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상을 받았을 때 무슨 말을 할지 마음속으로 연습했습니다.

“잭슨 베넷, 2등입니다.” 잭슨은 ‘2등’이라는 소리에 벌떡 일어섰습니다.

깜짝 놀란 잭슨은 부끄러워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누가 1등이지?’ 그는 속으로 궁금해했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크리스털 유약을 입혀 정교하게 제작된 작품으로 1위를 차지한 사람은 바로 와이어트 맥 팔랜드입니다.”

‘크리스탈 유약? 와이어트는 무광택 유약으로 한다고 했는데. 안 돼! 그럼, 내가 와이어트의 승리를 도왔다는 거야?’ 이 사실을 깨달은 잭슨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떠나기 위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와이어트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듣고 잭슨은 깜짝 놀라 몸을 돌려 단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와이어트가 단상에서 그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잭슨 베넷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내 유약 가루에 그의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멋진 도자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와이어트에게 잭슨이 너의 유약 가루에 무엇인가를 넣었다고 말해 주었지만, 와이어트는 잭슨이 자신의 도자기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작품을 보고 나서야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첨가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잭슨은 와이어트가 자기 행동에 화를 내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잭슨은 와이어트와 친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Lesson 176 Activity

**BE HUM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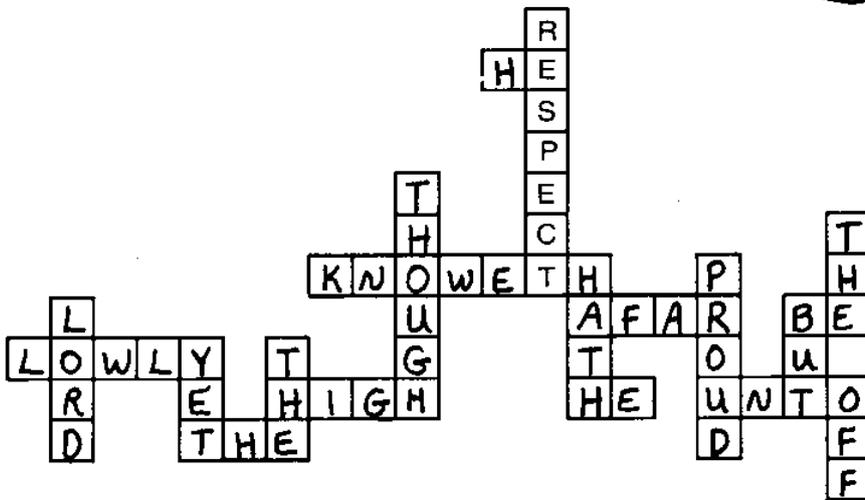
God honors a humble spirit. Find Psalm 138:6 in your Bible and write it on the lines provided. Then write each of the words from that verse into the puzzle grid below. Memorize the verse so you always remember what God expects of you.



## 겸손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이십니다. 성경에서 시편 138 편 6 절을 찾아 적어보세요 (KJV). 성경의 단어들을 활용하여 아래 퍼즐에서 완성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항상 기억하고 이 구절을 암송해 보세요.

*Though the LORD be high,  
yet hath he respect unto  
the lowly: but the proud  
he knoweth afar off.*



## 제 177 공과 변명하는 것은 어리석다

성경 본문: 누가복음 14:16-24

요절: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누가복음 14:17)

친구여! 나는 오늘 당신과 당신의 지역 사람들에게 매우 긴급한 문제에 관해 급히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귀족 여후엘 경이 곧 당신의 지역에 갈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왕실에서 파견한 인물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그가 왕으로부터 매우 신임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이 중요한 사실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러나 나는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먼저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알게 되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두 달쯤 전에, 여후엘 경이 우리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는 우리 집에서 12 가구 정도 떨어진 큰 저택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도착하기 전에는 이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그에 대해 아는 것이 그리 급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고장에서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 집안 사람들과 어울릴 만한 사람인지를 조사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의 고향에 있는 몇몇 지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의 성품과 그의 배경에 관해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주 뜻밖에도 여후엘 경의 하인이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 여후엘 경의 집에서 열리는 성대한 잔치에 나를 초대한다는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나는 그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인물인지 확신이 안 서서 변명했습니다. 나는 그의 하인에게 내가 땅을 샀으니, 저녁에 가서 그 땅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내 변명은 형편없었습니다. 땅을 구입하기 전에 땅을 살펴보지 않고 구입할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내 마음에 떠오른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인은 아무 말도 없이 내 변명을 듣고는 우리 집을 떠났습니다.

친구, 이건 나의 큰 실수였습니다. 나는 어리석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씁니다.

다음 날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시내로 나갔을 때, 시장은 전날 저녁에 있었던 큰일에 대한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나는 샌들 한 켤레를 주문하기 위해 구두장이 야곱의 가게에 들렀습니다. 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곳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게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에도요! 야곱 주위에 모인 사람들은 그의 “행운”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한 사람을 옆으로 불러내어 물었습니다. 그는 야곱이 전날 밤 여후엘 경의 집에서 열리는 큰 잔치에 초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나 역시 같은 잔치에 초대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주 궁금해졌습니다. ‘그 연회에 야곱이 초대를 받았다고?’ 그가 초대받았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습니다. 나중에 나는 야곱이 마지막에 초대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후엘 경의 하인이 연회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시장으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가고 있던 야곱을 만나 야곱에게 만찬에 함께 가자고 권했습니다.

이제부터가 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저녁 만찬은 이 지역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호화로운 식사였습니다. 음식은 훌륭했고 주변 인테리어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저녁 식사 후에 여후엘 경이 일어나서 말한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가 왕이 명령한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돈과 선물을, 왕을 대신하여 전달하기 위해 여러 도시로 파견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연회의 목적은 지역 마을 사람들을 빨리 알고 그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의 연회는 왕이 제공한 돈과 선물을 분배하는 유일한 행사였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이 전혀 예상치 못한 선물과 돈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나는 이 흔치 않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나는 변명한 것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금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서로 성격과 행동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후엘 경이 당신의 지역을 방문한다면, 그분의 초대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형제 예수아로부터

**NO EXCUSES!**



Many people make excuses for not serving God, but no excuse is good enough. If they continue making excuses they will receive no reward. The word list below is from our Bible text. Find each word in the word-find. Remember, they read up, down, across, backwards, and diagonally.

I'M GOING TO THE FEAST! ARE YOU?

YES!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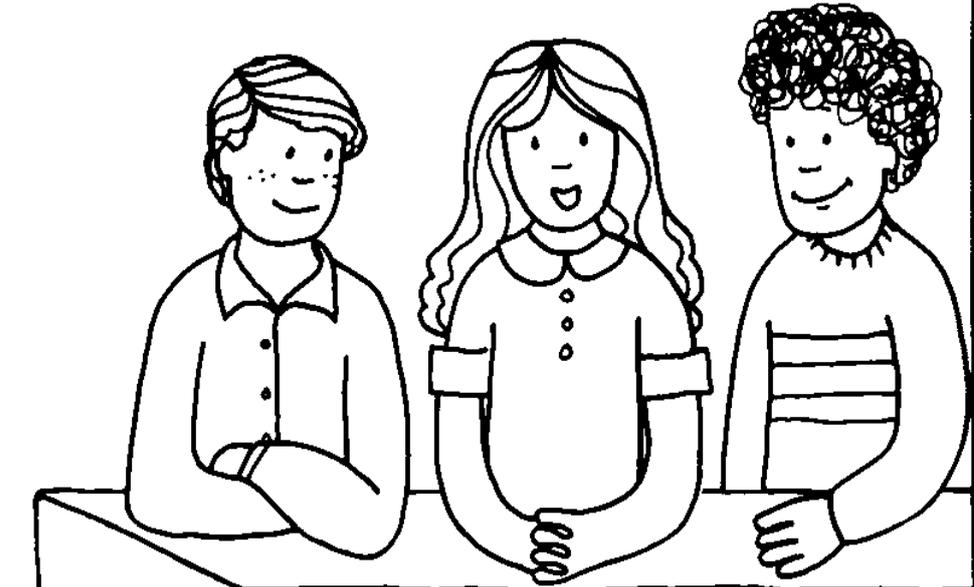
- |      |       |        |          |
|------|-------|--------|----------|
| MAN  | ROOM  | READY  | MASTER   |
| BADE | WIFE  | TASTE  | SERVANT  |
| CITY | YOKE  | BIDDEN | SUPPER   |
| COME | ANGRY | CANNOT | EXCUSES  |
| HALT | BLIND | COMPEL | MARRIED  |
| MANY | GREAT | FILLED | QUICKLY  |
| OXEN | HOUSE | GROUND | STREETS  |
| POOR | LANES | HEDGES | HIGHWAYS |
| PRAY | PROVE | MAIMED |          |



# 변명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 변명하지만 어떤 변명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계속 변명과 핑계를 댄다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알파벳 퍼즐에서 찾아보세요.

- MAN
- BADE
- CITY
- COME
- HALT
- MANY
- OXEN
- POOR
- PRAY
- ROOM
- WIFE
- YOKE
- ANGRY
- BLIND
- GREAT
- HOUSE
- LANES
- PROVE
- READY
- TASTE
- BIDDEN
- CANNOT
- COMPEL
- FILLED
- GROUND
- HEDGES
- MAIMED
- MASTER
- SERVANT
- SUPPER
- EXCUSES
- MARRIED
- QUICKLY
- STREETS
- HIGHWAYS



S	S	E	S	U	C	X	E	J	Q	Z	F	V	J	N	A	M
E	U	J	O	X	E	N	D	F	U	B	J	I	F	S	J	A
N	P	W	Y	Z	J	W	A	Z	I	L	E	P	L	Z	W	I
A	P	O	O	R	B	P	B	J	C	I	K	J	M	L	J	M
L	E	J	P	V	Z	J	Y	F	K	N	O	H	A	Z	E	E
P	R	Z	C	A	N	N	O	T	L	D	Y	A	S	W	Z	D
S	W	E	J	V	Z	W	J	N	Y	Z	P	L	T	J	L	P
E	Z	P	A	N	G	R	Y	A	V	J	S	T	E	O	Z	J
S	J	E	V	D	Z	K	J	V	W	Y	E	Z	R	F	D	P
U	F	Z	F	W	Y	P	R	A	Y	G	D	W	J	N	V	
O	W	J	Y	I	J	Z	F	E	Z	V	D	J	P	Z	U	E
H	H	I	G	H	W	A	Y	S	T	R	E	E	T	S	O	V
J	Z	W	J	P	Z	K	J	Z	A	Y	H	Z	T	J	R	O
M	A	R	R	I	E	D	W	B	S	J	K	A	Y	Z	G	R
P	Y	N	A	M	J	M	Y	Z	T	B	E	Z	W	T	F	P
J	R	O	O	M	Z	V	O	P	E	R	J	P	Z	W	I	J
B	I	D	D	E	N	J	Z	C	G	Z	L	E	P	M	O	C

## 제 178 공과 잃은 한 마리 양

성경 본문: 누가복음 15:1-10

요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11)

알렉스는 피곤해서 지쳤습니다. 그는 서서 기지개를 켜면서, 그 앞에 펼쳐진 험준한 언덕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막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서운 바람에 외투를 여미며 양 떼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양 떼를 살피며 양치기 개를 불렀습니다. "파샤! 이제 가자." 그는 양 떼를살피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리엘은 어디에 있지?"

"아리엘?" 그가 불렀습니다. "아리엘, 집에 갈 시간이야." 그는 어린 양이 나타나길 잠시 기다렸지만, 그 무리 속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리엘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맞아, 아리엘은 숨바꼭질을 좋아하지.' 갑자기 드는 생각에 그는 주위 덩불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양들이 풀을 뜯고 있던 공터 가장자리까지 걸어가서 바위 뒤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리엘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내가 아리엘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지?' 불안한 생각이 알렉스의 마음을 휩쓸었습니다. 늦은 오후, 햇빛을 받으며 아리엘이 꽃밭 옆으로 달려가는 것을 본 기억이 났습니다.

"파샤!" 그는 재빨리 자기 양치기 개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너는 양을 다시 데려가. 나는 아리엘을 찾아야 해!" 그는 개가 자신의 지시를 따라 행동하는 것을 본 뒤, 방향을 돌려 바위 비탈 쪽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리엘!" 그는 걸음을 걸을 때마다 소리쳤습니다. "어디 있어, 아리엘?" 주변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솟아오르는 불안감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어두워지면, 글썽' 그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렉스는 얇은 계곡으로 내려가 보고, 반대편으로 올라가 바위와 덩불 옆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아리엘은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 방황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리엘은 너무 작아서 멀리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덩불에 갇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덩불이 무성해서 어린 아리엘이 다니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리엘은 소리를 내면서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알렉스는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자, 차가운 산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한번은 돌에 미끄러져 지팡이조차 놓칠 뻔했습니다. 다리에 상처가 조금 나서 쓰라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산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앞에는 북쪽을 가로지르는 험준한 계곡이 있었습니다. 주변은 점점 어둠으로 짙어져 갔지만, 산기슭 가장자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리엘이 아닐까?’ 바람 소리 너머로 다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렉스는 계곡 가장자리 쪽으로 허리를 굽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 아리엘이 있었습니다! 6m 아래 덩불에 아리엘이 걸려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아리엘이 놀라서 움직일까 봐 아리엘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아리엘이 조금만 움직이면 바위 아래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자기 허리에 감고 있던 밧줄을 풀었습니다. 밧줄의 한쪽 끝을 나무에 묶고, 밧줄이 잘 고정되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른 쪽 끝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는 밧줄을 잡고 아래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거친 밧줄에 손이 찢어졌지만, 알렉스는 고통을 참았습니다. 그는 아리엘을 빨리 구해야 했습니다!

순간 그는 발이 평평한 곳에 이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바위에 몸을 고정하고 한숨을 돌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리엘, 너를 데리러 왔단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거라.”

알렉스는 부드럽게 잃어버린 어린 양을 품에 안았습니다.

## SEEKING THE LOST

This activity is about lost things.

Below are several messages about the parables Jesus told, but part of each message was lost in the mail. Read the Bible text for this lesson and try to find the lost parts, then write them where they belong.



## 잃어버린 것 찾기

오늘 활동은 빈칸 채우기입니다. 성경 본문을 읽고 빠진 부분을 채워보세요



(verse 4)  
A shepherd left 99 sheep behind to go and search for the lost one.

(verse 5)  
When the shepherd found the sheep he laid it on his shoulders.

(verse 6)  
The shepherd wanted his friends and neighbors to rejoice with him.

(verse 8)  
A woman had ten pieces of silver but she lost one.

(verse 8)  
The woman lit a candle and swept the house till she found it.

(verse 9)  
The woman called her friends and neighbors to rejoice with her.

(verse 10)  
In Heaven there is joy in the presence of angels over one sinner that gives his life to Jesus.

## 제 179 공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성경 본문: 누가복음 15:11-24

요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6:1)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단지 오래전에 일어난 일 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수업에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과 매우 비슷한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 \* \* \* \*

허름한 차고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곳은 피터의 은신처였습니다. 피터는 작은 간이침대에서 나와 차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나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피터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피터는 아버지가 자신을 찾으면 자기에게 교회로 가자고 권하리라는 것을 알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재미로 마약을 시작하게 되었고, 어깨에 “man” 이라는 문신도 새겼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나서야 그는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느꼈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십 대 때까지 주일마다 교회에 갔습니다. 그는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턱수염에 긴 머리, 귀걸이를 한 마른 자기의 얼굴이 보였지만, 자신의 마음속 깊은 절망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을까요? “아버지, 나를 마약 클리닉으로 데려가 주세요. 아마도 그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피터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에 다다랐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 \* \* \* \*

클리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록 스타가 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많은 친구를 만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해 유명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와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온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기타로 코드를 연습하고 자신만의 록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는 결국 술집을 드나들다 마약을 하게 되었고 조금씩 그가 번 돈은 손가락 사이로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친구라고 생각했던 록밴드 멤버들조차 그를 떠났고, 그들은 더 이상 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행 가방, 기타, 마약 습관(지원할 돈조차 없었음), 그리고 추억을 안고 길 위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어린 날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향했고, 어린 시절의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 \* \* \* \*

론의 어머니는 그날 저녁 그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머니를 쓰러뜨리고 어머니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밖에 있는 세상은 항상 교회에 가거나 주일학교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신나 보였습니다.

한동안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는 결국 집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좋은 직장을 얻었고, 자신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파티도 있었고, 술도 있었고, 마약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 친구들에게 마약을 강요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사를 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예수님께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

\* \* \* \* \*

이 이야기들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실제 사실입니다. 책이나 신문에서 가져온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모두 좋습니다. 피터와 클리프, 론은 마침내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를 깨닫고, 계속해서 등을 돌렸던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역 주요 도시들의 거리에는 삶의 방향을 잃은 가출 청소년 수백 명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만 토요일 밤 포크 거리(Polk Street)의 3~4 블록 지역 내에서 12~18 세의 가출 청소년 약 400 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경찰 통계가 아닙니다. 내가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열두 살 아이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내가 그 도시에서 그들을 보고 통계가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방황하는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 삶의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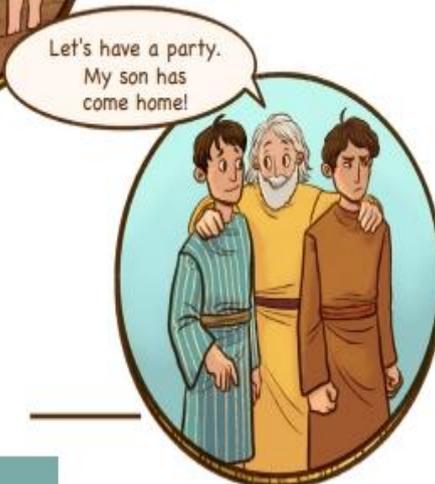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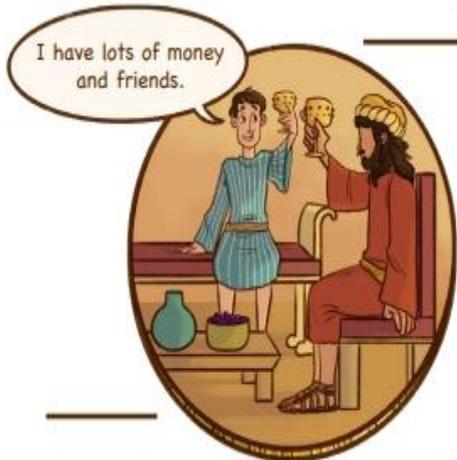
예수님은 수 세기 전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던 소수의 사람만을 위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여전히 소년 소녀들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놓치고 있

는지 모르는구나! 교회와 주일학교는 잊어버려. 나가서 실제 세계가 무엇인지 확인해 봐. 재미있게 세상을 즐겨 봐!”

만약 당신이 피터, 클리프, 론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들은 이것이 사탄이 속삭이는 거짓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은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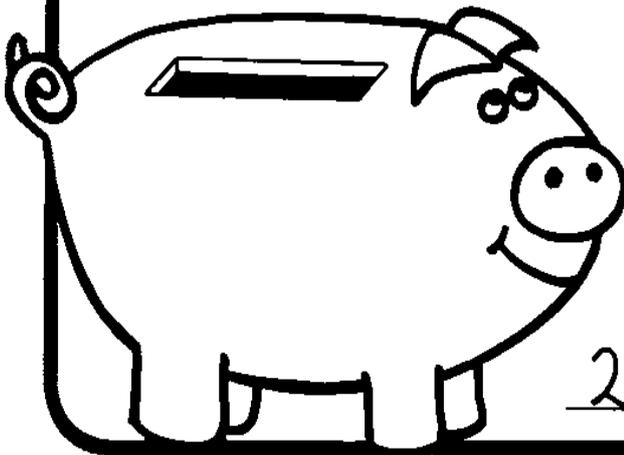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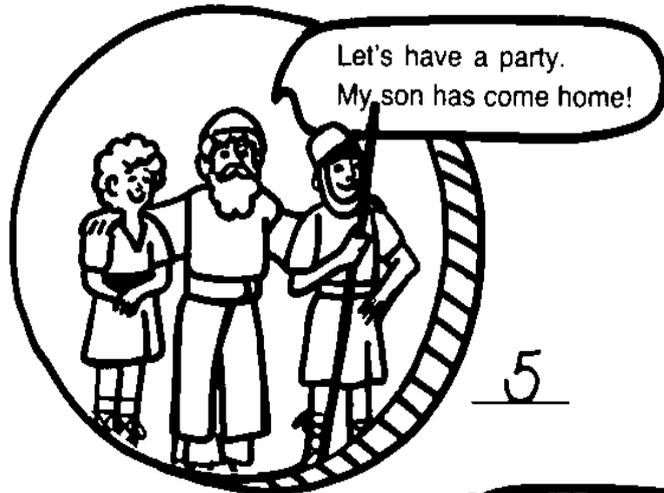
**WE NEED JESUS**

The coins below show the story of the Prodigal Son but they are not in the correct order. Read the Bible text (Luke 15:11-24), then number the pictures in the order they happened. There is a line beside each coin for you to write the number on.



# 예수님이 필요해요

아래 동전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본문을 읽은 후 이야기 순서에 맞게 번호를 매기세요.



## 제 180 공과 어느 왕자가 왕이 되어야 할까?

성경 본문: 누가복음 16:1-13

요절: 그리고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2)

두 왕자가 풀밭 위를 질주하며 아이들처럼 고함을 지르자, 메추라기 떼가 언덕을 향해 급히 달아났습니다. 그들은 겨울 태양 빛을 받으며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고함을 잠시 멈추고 속도를 늦추며 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이겼다!" 메렉이 말했습니다.

"그래." 가웨인이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메렉 형. 하지만 다음번에는 달라질 테니 기다려!"

형의 등을 다정하게 툭 치며 가웨인은 다시 성을 향해 달려갔고 형도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초원 옆에 묶어둔 말을 탔습니다. 그들은 저녁에 있을 일에 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게 뭘까?"

"메렉 형, 내 생각엔 아버지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이 세상에 오래 살지 못한다고 여기시는 것 같아. 지난 3 개월 동안 아버지가 몹시 아프셨잖아. 어쩌면, 아마도 아버지는 형이 왕이 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메렉은 멈춰서 그의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왕이 될 준비?"

"물론, 형이 나보다 몇 분 더 먼저 태어났잖아. 그건 내가 이기지 못하는 부분인걸!" 두 왕자는 웃으며 성을 향해 계속 달렸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을 서쪽 탑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내 아들들아, 오늘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파악하느라 매우 바빴을 것 같구나." 그는 말을 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깊은 기침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몹시 아프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거야. 사실 내가 너무 아파서 죽을 때, 대신들이 어떻게 다음 왕에 대해 처리할 것인지 알 수 있도록 몇 가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메렉, 네가 가웨인보다 몇 분 먼저 태어나서 장자로서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다. 그러나 최근에 나는 왕국의 조례에서 쌍둥이일 경우 다른 절차를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한 후, 하나의 과정을 거쳐 다음 왕을 선정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잠시 쳐다본 다음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왕은 이 넓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고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너희 중 누가 왕좌에 더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나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것이다. 너희가 나의 질문에 적절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열흘의 시간을 주겠다. 너희들이 찾은 답은 이 왕국을 누가 통치할지 결정해야 하는 5 명의 재판관 앞에서 듣게 될 것이다. 내 아들들이여, 질문은 이것이다. 이 나라를 어떤 원칙과 지침으로 다스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해라.”

그 후 며칠 동안 메렉은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왕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근거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가웨인은 자신의 방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과 기도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열흘이 지났습니다. 왕자들이 쓴 답변서가 의회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재판관들과 국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다음 왕에 대한 결정이 다음 날 정오에 왕국의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들은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재판장은 일어서서 왕의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답변서를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메렉 왕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왕국을 다스릴 때 내가 가져야 하는 원칙은 백성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통치자로서 나 자신을 위해 살 권리가 없고, 오히려 내가 통치할 백성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웨인 왕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이 왕국을 다스릴 때 내가 가져야 하는 원칙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권과 책임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로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라의 모든 일을 처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약속된 시간이 되자, 성 안에 모인 군중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분위기는 엄숙하였습니다. 왕은 아직 결정을 듣지 못한 두 아들을 데리고 신하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왕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가웨인 왕자가 왕위에 오르는 것이 판사들의 결정임을 선언합니다. 가웨인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작은 사람과 큰 사람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따르며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메렉은 미소를 지으며 가웨인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웨인, 네 말이 옳았어. 이번 시합에서 네가 이겼어.” 그는 가웨인에게 절을 한 다음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가웨인은 미래 왕이 될 사람을 환영하기 위해 기다리는 군중들 앞으로 나갔습니다.





## 하나님께 우리가 사용한 것을 말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래 퍼즐을 완성해 보세요. 알파벳을 빈칸에 순서대로 넣으세요. 예) V는 첫 번째 빈칸에, I는 두 번째 빈칸에 넣으세요.

		S	O		T	H	E	N												
E	V	E	R	Y			O	N	E				O	F						
	U	S			S	H	A	L	L			G	I	V	E					
		A	C	C	O	U	N	T					O	F						
H	I	M	S	E	L	F		T	O			G	O	D						
	V	E	O	Y	H	H	E	N	O			I	F	E						
	I	S	R	C	O	A	N	E					V	D						
		M	C	E	L	U	L	L					F							
			S			F	N	T					O							



We want to

PLEASE God.

LASEEP

(Unscramble word in sentence above.)

## 제 181 공과 거절의 결과

성경 본문: 누가복음 20:9-19

요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11)

“아멜리아, 여기 사회 수업에 사용할 만한 기사가 있구나.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

아멜리아는 컴퓨터에서 고개를 들고 끄덕였습니다. “네, 무엇을 찾았나요, 아빠?”

“아빠, 뉴스 헤드라인에 '레이번(Rayburn)이 잠재적 핵 재앙에 대해 경고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기사 내용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물리학자 레이번이 메릴랜드 원자력 발전소에 핵폭발이 일어나기 몇 주 전에, 발전소의 위험에 대해 담당 공무원에게 경고했다고 적혀있어요.”

아멜리아는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기 힘들었겠지만,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핵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얼마나 좋겠니! 기사는 여기 있단다. 이것을 훑어보고 사회 시간에 사용하면 어떨지 확인해 줄래?”

아멜리아는 아버지에게서 노트북을 받아 기사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명 물리학자 다니엘 레이번(Daniel Rayburn) 박사는 수요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메릴랜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고위 관리들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논의는 지난 주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폭발로 인해 18 명이 사망하고 54 명이 상처를 입기 몇 주 전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이번 박사는 호텔 로비에 모인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전소 확장을 고려하고 있는 엔지니어 그룹이 핵폭발 위험 가능성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했고, 내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엔지니어 그룹의 대표 두 명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관해 고위 관리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두 대표는 고위 관리들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고 그들의 조사 결과는 무시되었습니다.

“두 대표는 나에게 프로젝트 관계자에게 가서 다시 한번 연구 결과를 전달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들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나는 정말로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은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발표가 거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대통령 원자력 위원회 의장인 제프리 고튼(Geoffrey Gorton) 박사에게 연락하여 나를 위원회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멜리아는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똑똑한 사람들이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다니 믿을 수 없어요. 레이번 박사는 원자력 위원회에 가서 발전소의 위험을 알릴 권리가 있었어요. 그는 책임감을 느끼고 말한 거 아닌가요?”

그녀의 아버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네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아멜리아, 아마 그들은 그가 지적한 공학적 오류가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의 경고를 거절했을 거야.”

아멜리아는 기사를 인쇄했습니다. “이 기사를 내일 수업에 가져갈 거예요. 이것에 대해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사회 수업에는 학생들이 가져온 기사에 대해 토론하는 데, 이 기사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멜리아의 아버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아멜리아, 이 기사를 읽으면서 너는 어젯밤에 읽은 성경 말씀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악한 농부들에 관한 이야기 기억하지? 그들은 포도원의 열매를 가지러 온 주인의 하인들을 거절했고,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으나 그 아들을 죽였지.”

“네, 그 이야기를 기억해요.” 아멜리아가 말했습니다.

“성경의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평안하게 해주고, 그들의 죄가 용서되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

“네.” 아멜리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거절당했네요. 그리고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을 때, 이 사건은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지 않았네요. 18 명이 죽고 54 명이 다친 사건도 끄찍하지만, 예수님을 거절한 사건의 결과는 더 끄찍한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지잖아요.”

조용한 거실에서 아멜리아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네 말이 맞아, 아멜리아.”

**DON'T TURN HIM  
A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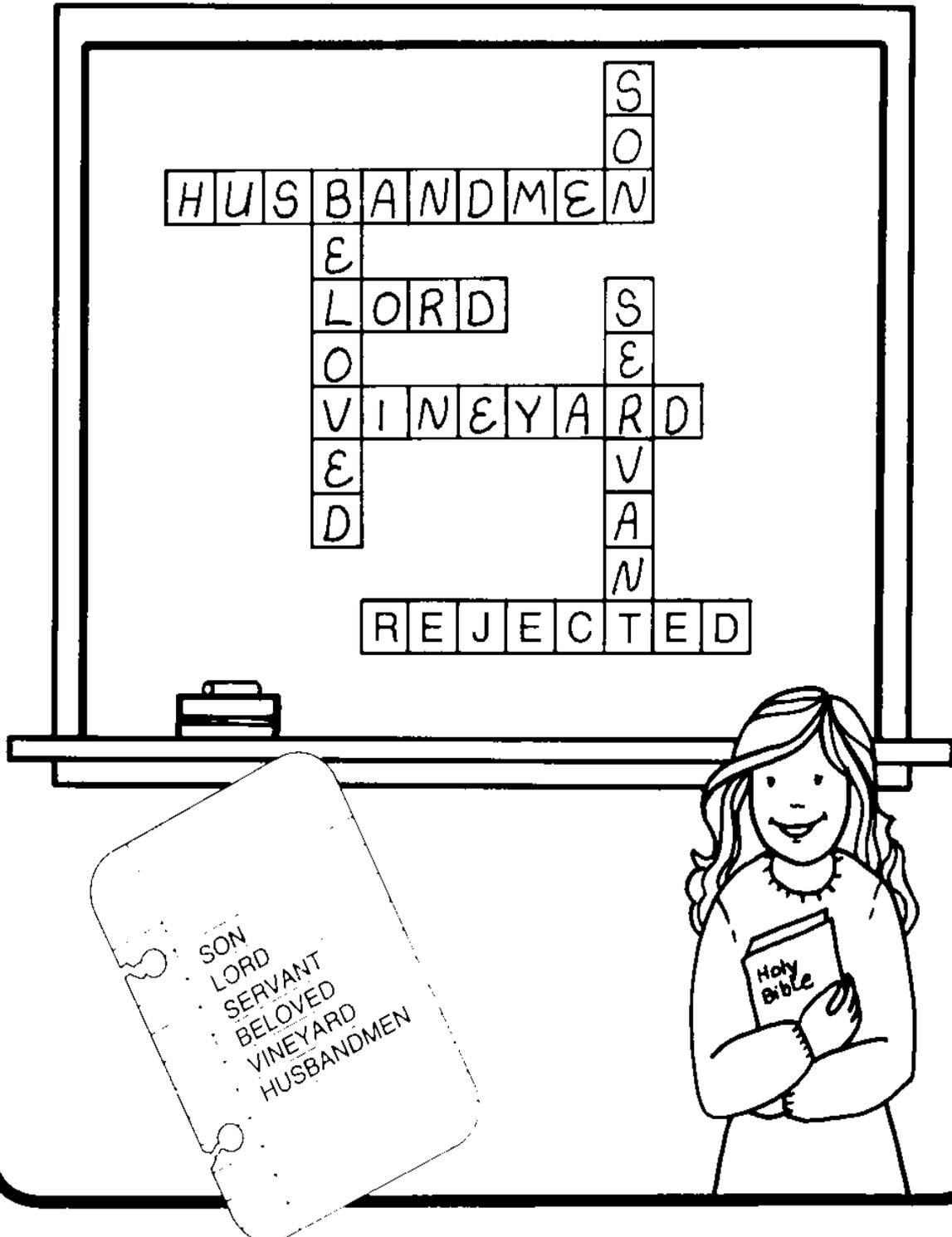
The words on the list below are from the Bible text. Write them in the grid where they fit. The word REJECTED is already printed. Rejecting Christ is something we never want to do.

SON                      BELOVED  
LORD                     VINEYARD  
SERVANT                HUSBANDMEN



## 주님을 외면하지 마세요

성경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 이 아래에 적혀 있습니다. 아래 단어로 퍼즐 칸을 채워보세  
요.



## 제 182 공과 공과 복습

성경 본문: 각 공과 성경 본문들

요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마태복음 13:34)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익숙한 문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정글 깊은 곳에 있다고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캄박이는 불빛 속에 여러분 주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원주민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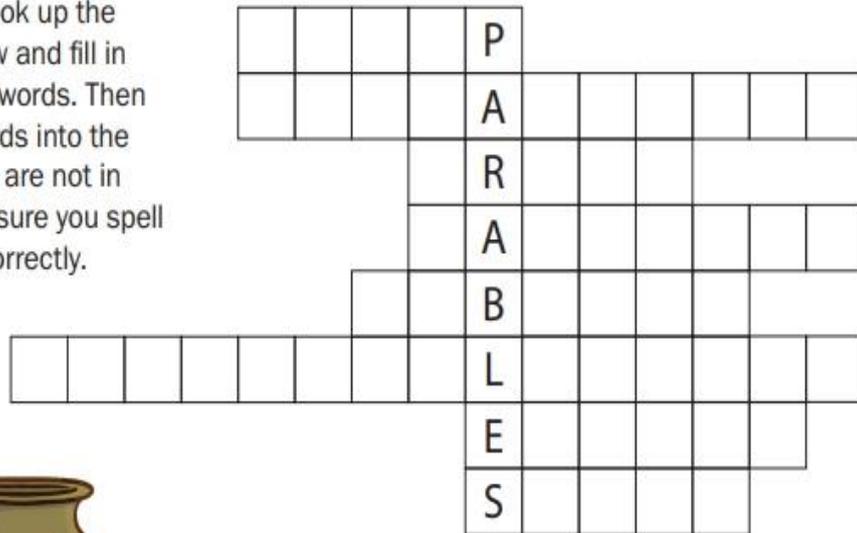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그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당신의 삶의 방식에 대해 가르쳐주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전구를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전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소가 끄는 투박한 수레가 유일한 이동 수단인 사람에게 자동차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하여 비교하고 비유하면서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전구를 그들이 사용하는 나무 횃불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동물 없이 움직이는 수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그들은 조금씩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듯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것과 잘 알지 못하는 영적인 것을 비교하면서 비유를 사용하여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비유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 비유들을 배웠습니다.

**QUARTER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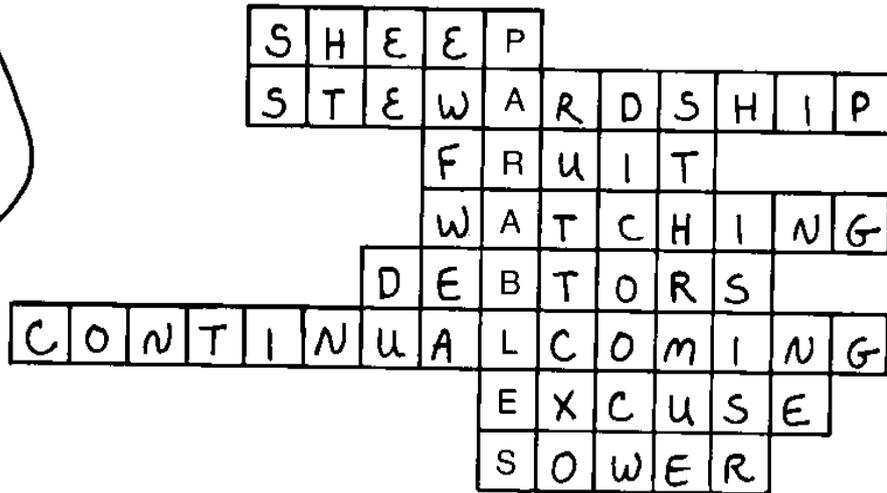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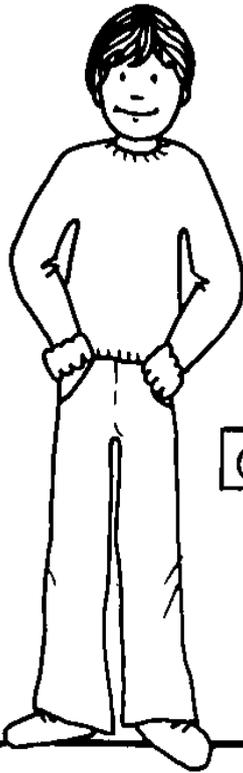
Christ spoke in parables so that people who heard Him could understand him better. The acrostic to the right is about parables. Look up the verses below and fill in the missing words. Then fit those words into the puzzle. They are not in order so be sure you spell the words correctly.



- “Give an account of thy \_\_\_\_\_.” (Luke 16:2)
- “There was a certain creditor which had two \_\_\_\_\_.” (Luke 7:41)
- “For I have found my \_\_\_\_\_ which was lost.” (Luke 15:6)
- “A \_\_\_\_\_ went out to sow his seed.” (Luke 8:5)
- “I will avenge her, lest by her \_\_\_\_\_ she weary me.” (Luke 18:5)
- “Blessed are those servants, whom the lord when he cometh shall find \_\_\_\_\_.” (Luke 12:37)
- “And if it bear \_\_\_\_\_, well.” (Luke 13:9)
- “And they all with one consent began to make \_\_\_\_\_.” (Luke 14:18)

##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유로 말씀 하셨습니다. 아래 문제를 먼저 풀고, 밑줄에 해당하는 단어들로 퍼즐 칸을 채워보세요.



"Give an account of thy stewardship" (Luke 16:2)

"There was a certain creditor which had two debtors." (Luke 7:41)

"For I have found my sheep which was lost" (Luke 8:5)

"A sower went out to sow his seed" (Luke 8:5)

"I will avenge her, lest by her continual coming she weary me" (Luke 18:5)

"Blessed are those servants, whom the Lord when he cometh shall find watching." (Luke 12:37)

"And if it bear fruit, well" (Luke 13:9)

"And they all with one consent began to make excuses." (Luke 14:18)